

독감 예방백신 잔여물량 ‘어쩌나’

병·의원 접종 이달 마감... 제주 접종률 47% 불과 저조 백신 사용 기한 6개월... 물량 남은 시 모두 폐기해야

제주도가 지난 10월부터 자체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조한 접종률로 막대한 물량의 백신이 폐기될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의 접종률은 47.29% (13만8316명·확보된 백신 대비 제주도의 목표 접종률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사업 백신 접종률은 이보다 높은 77%(18만4881명)이다.

제주지역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은 시행 주체와 연령대에 따라 두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에 이르는 영유아와 청소년, 만 62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국가가, 나머지 만 19세부터 만 61세까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맡아 무료 접종한다.

제주도는 겨울을 앞두고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해 혼선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19세

~만 61세 도민까지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원별로는 전체 도민 중 26만 2594명이 국가를 통해, 41만7828명이 제주도 자체 사업을 통해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방비를 들여 도내 자체사업 접종 대상자 41만7828명의 70% 수준인 29만6000명분의 백신 물량을 미리 확보했다.

제주도는 한 지역 내에서 인구의 65%가 백신 접종을 마지면 집단 면역(Herd immunity)이 형성돼 나중에 감염병이 유행해도 대규모 전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료계 연구결과와 백신 접종을 신청하지 않는 도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수준으로 백신 물량을 구입했다. 백신 구입비로 예산 42억원이 소요됐다.

당초 제주도 자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0월 중순까지만하더라도 각 병·의원마다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복잡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접종 열기는 사그라 들었다.

제주도는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보고되고, 백신 운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던 점을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로 꼽았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백신과 사망 사고 간에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번 생긴 불안감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또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생활 습관이 자리잡으면서 감기에 걸린 사람이 예전에 비해 줄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도 자체 백신 접종사업은 민간 병·의원의 경우 오는 12월31일, 보건소의 경우 내년 4월말 종료한다. 독감 백신 사용 기한은 6개월로, 내년 6월이면 그 기한이 만료돼 이 때도 백신이 남으면 활용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처분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을 위해 무료로 독감 백신 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백신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만큼 하루 빨리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눈 덮인 한라산과 역사 추위가 다소 수그러든 1일 제주도 봉개동 건월역에서 바라본 눈 덮인 한라산과 역사가 제주 겨울정취를 한껏 자강희만기자

유아체험교육원 조성, 토지 매입 문제로 난항

옛 회천분교·세미숲 잇는 추가 부지 매입 협상 결렬 마을회·교육청 요구 금액 달라 “지속 협의... 우회통로도 검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추가 토지 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유아체험교육원 예정지인 옛 회천분교와 인근에 있는 1만8815㎡ 규모의 ‘세미숲’을 잇기 위한 토지 매입이 최근 좌절됐다.

해당 토지는 회천분교와 세미숲

사이에 있는 부지(제주시 회천동 2390-1번지·3513㎡)인데, 마을회에서는 15억원을 요구한 반면 도교육청은 11억원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해당 토지 매입 관련 11억원이 삭감된 상황이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공간구성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유아들이 세미숲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에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매입에 착수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후에 마을회와 협상이 타결되면 시설개선기금으로 예산을 살릴 수 있다”면서도 “만약 매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세미숲으로 가는 우회통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 186억원을 투입하는 유아체험교육원은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삼양초등학교 옛 회천분교 일대(9620㎡)에 유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설계 용역과 공모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나선 이석문 교육감은 “획일화되고 복제됐던 기존의 놀이터를 벗어나, 제주 자연과 다양한 놀이 속에서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놀이터를 만들겠다”며 유아체험교육원 조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자치경찰, 수능 당일 특별교통관리

모범운전자회·봉사대도 투입 “수험생 편안하게 이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021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당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특별교통관리에 나선다.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날 교통경찰 80

명, 모범운전자회 451명(제주시 381명, 서귀포시 70명), 자치경찰주민봉사대 42명을 도내 14개소 시험장 주변 및 인접교차로에 배치한다. 아울러 싸이카(10대)와 모범운전자회(114대) 차량을 투입해 합동으로 제주시 7개소와 서귀포시 7개소를 빈차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장소는 ▷제주시 광양4가, 이도광장, 동문로터리, 시외버스터미널, 웅담4가, 신제주로터리, 노형5가 ▷서귀포시 1호광장, 동문로터리, 주공2단지 새마을금고, 주공6단지 입구, 신시가지 이마트, 삼주아파트, 부영아파트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이와 함께 대학수능 교통상황실을 일시적으로 운영, 수험생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람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토지 관련 문화재 정보 쉽게”

제주시는 토지에 문화재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담은 ‘문화재 관련 정보 쉽게 찾아보기’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현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main>)에서 누구나 해당 토지에 대한 문화재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이 서비스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리플릿에는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사이트 접속부터 토지에 대한 문화재 규제사항 확인 방법이 쉽게 설명돼 있다. 또 사이트에서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서로는 알 수 없는 매장문화재 구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와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문화재 관련 규제사항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제주 주택 매매·전월세 가격 하락세

한국감정원 11월 전국 동향 전국 유일... 변동률 2.11% ↓

제주지역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1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4% 상승했다.

시도별 상승률은 부산이 1.28%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1.08%), 대구

(1.06%), 대전(1.02%), 세종(0.94%), 경기(0.74%), 충남·인천(0.42%)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6% 떨어지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올해 누계 변동률은 -2.11%로 지난해 누계 변동률(-2.30%)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제주지역 주택 유형별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은 아파트 -0.03% (올해 누계 -2.07%), 연립주택 -0.08

(누계 -2.26%), 단독주택 -0.07% (누계 -2.09%) 등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66%, 월세가격은 0.18% 상승했다. 반면 제주지역은 입주 물량 누적 및 지역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노후주택 수요 감소로 인해 전세가격은 0.05%, 월세가격은 0.02% 각각 하락했다.

지난달 도내 유형별 전세가격 변동률은 아파트가 0.01%(올해 누계 -1.29%)로 유일하게 올랐으며, 연립주택은 -0.07%(누계 -1.85%), 단독주택은 -0.06%(누계 -1.65%)로 떨어졌다.

김현석기자 ik02@ihalla.com

상쾌함이 필요할 땐 올레원 풋골

시원 상큼한 비타민 한모금
올레원 풋골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 T.064) 733-0693 올레원